

시인의 마을



연잎을 물고 있다
 소금쟁이 물결 파장에 잠자리 놀란 만도 허다
 그런데도, 끔찍하지 않는다
 연잎에 가느다란 발끝으로 아슬아슬 매달려 있다
 어찌 보면, 딱, 그 자세다
 잠자는 척하는 모양새가 도도하다
 연잎은 아침이면 피어나야 한다
 말도 못 한다
 수양버들처럼 작은 바람에도 휘어진다
 흐린 하늘에서 마른벼락이 치고 비를 뿌려도
 무사태평, 연못의 지배자다
 소금쟁이 물결 파장이 넓어진다
 여전히 깃털 같은 너를
 연잎은 사랑으로 물고 있다

잠자리, 연잎을 물다

시어를 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네 번째다. 도도하게 방역 조치를 잘 때렸다. 그래서인지 3년째 피해 가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루, 이를 집에서 보내자니 답답하다. 아내 몰래 산책이라도 다녀오려다 핀잔만 받았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다. 여마살이 긴 것인지, 나만 이렇까. 닫힌 공간은 숨이 막힌다.
 다행인 것은 지난 집종과는 달리 열을 느끼지 못했다. 예방차원의 해열제 외에는 무난하게 지나갔다. 그리고 3일 차에 드디어 눈에 익은 산책로를 거닐었다. 맑게 맑은 공기와 햇살을 품었다. 그리고 사진도 남겼다. 덕분에 시 한 편이 세상과 마주한다. "잠자리, 연잎을 물다"가 제목이다. 기다려 준 자연이 고맙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인생은 살맛나는가 보다.



박여bem

시인
문학박사·문학평론가

사설

백내장 과잉진료 문제

백내장 수술을 실손보험으로 100% 보상 받을 수 없게 됐다. 입원 치료에 준해 실손보험금이 지급됐던 백내장 수술이 전 환자를 맞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1분기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백내장 실손보험 청구 금액이 2분기 들어서 크게 줄어들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한 데다 금융 당국이 백내장 과잉 진료 단속에 나선 효과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10개 보험사들은 지난 3월에만 1일 평균 75억 원 규모의 백내장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4월 이후 절반 이하인 30억 원대로 줄었다. 백내장 과잉 진료가 급증하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심해지자 보험업계와 금융 당국이 적극 대응에 나선 때문이다. 실제로 안과 병원의 인원의 백내장 수술이 감소했다.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2조 8602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백내장 때문에 올리는 적자가 3조 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보험사들은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 심사를 강화했고 금융 당국은 백내장 과잉 진료 조사에 나섰다.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 등을 진행했다. 백내장 과잉 진료로 실손보험 누수가 커지면 결국 대다수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백내장 과잉 진료와 관련해서 보험사들에게 유리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실손보험 누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그동안 환자의 개별 치료 조건과 무관하게 일원 치료로 인정됐다.
 대법원이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액은 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백내장 수술을 하려는 사람들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미리 상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포괄임금제 문제

공짜 노동을 부추기는 포괄임금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과로하는 나라다. 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제도가 바로 포괄임금제다.
 실제로 일마를 일하든, 미리 정해놓은 수당만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대기업 열 곳 중에 여섯 곳이 사무직원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 어느 최대 호텔 예약 플랫폼의 경우 코로나 상황에서도 30%나 성장했다. 2021년 매출 3천7백억 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 직원이던 어느 퇴직자는 수시로 야근에 시달렸다고 했다.
 밤 10시, 11시까지 매일 야근을 했다. 너무 힘들어서 한 번 7시 반에 가려고 했다. 그랬더니 상사가 아직 결산도 안 끝났는데 어딜 가느냐고 했다.
 이 회사는 1천 명이 넘는 전 직원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 1주일 40시간의 법정 노동

시간에 더해, 12시간 연장 노동 수당까지, 미리 월급에 포함해서 준다.
 합하면 주 52시간, 법적으로 가능한 최장 노동 시간이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일해도, 추가 수당은 없다. 회사는 "주 40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문화"라고 주장한다.
 "자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라 노동 시간은 별도로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초과 노동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수당까지 월급에 포함해 주는 제도다.
 원래는 노동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일부 직종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대기업들이 일반 사무 직원에게까지 그냥 이 제도를 적용한다.
 삼성과 현대차 그룹의 모든 계열사, LG전자와 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전체 대기업의 58%나 된다.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과로와 공짜 노동을 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5개월 만의 가족 재회 기다리는 우크라이나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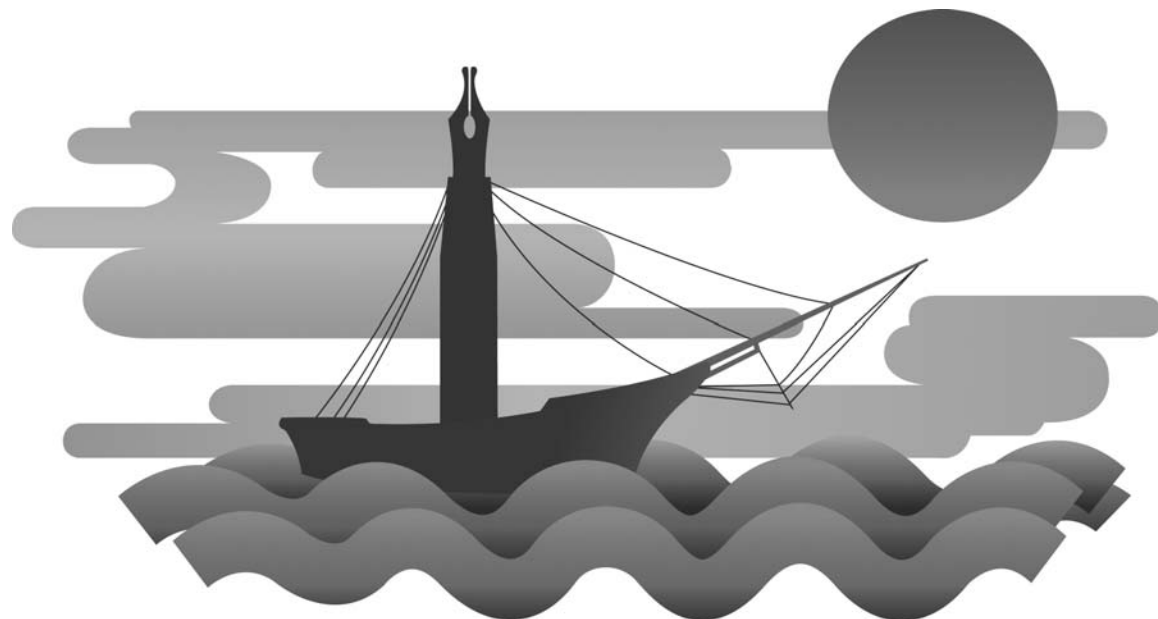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르비우역에서 한 남성이 꽃다발과 풍선을 들고 러시아의 침공 이후 5개월 만에 재회하는 아내와 아들(4)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전 참전 '추모의 벽'에 놓인 꽃다발



2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준공된 '추모의 벽'에 꽃다발이 놓여 있다. 이날 6·25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키투사 전사자 4만여 명의 이름을 새긴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 겸 헌정식이 열렸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